

데스크 시각

짚뱀힌 정의



홍행기 사회부장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펴낸 정치철학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다.

‘분배’와 관련된 정의(Justice)를 다룬 이 책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켜지고 있는지’라는 의문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선 10만 부 남짓 판매되는 데 그쳤던 이 책이 한국에선 무려 20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터다.

물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찾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정의가 실제로 있거나 한 것인지에 대해선 샌델 역시 의문부호를 달고 있기는 하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권력·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교육 기회의 불공정

하지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샌델의 말에 기대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건가’라며 혀를 차고 말기에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도 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배에 있어서 ‘공정함’을 정의라고 단정 짓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교육의 기회’다. 교육의 기회는 결국 ‘미래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주병기 교수는 “가정의 소득이 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성취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교

육 기회의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제시했다. 수능 성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과 각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수능 시험의 언어 및 외국어 영역에서 기회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학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지출할 여력이 생겨 교육 성취 기회에 차이가 생겨난다는 통설을 입증한 것이다.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그에 따른 폐단은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대졸받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허덕이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넉넉한 재산을 물려받아 유유자적한 인생을 즐기는 청년도 적지 않다는 점이 좋은 사례다.

251만 명 대 3만 명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대학생 251만 명이 7조3924억 원에 이르는 ‘등단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등단학자금’은 가구 소득 8분위 이내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니 결국 ‘가난한 집’ 아들·딸들이 빚을 내 공부할 한 셈이다. 하지만 사회의 또 다른 한 편에선 최근 5

년간 18~25세 청년 3만1709명이 4조 2668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증여받았다. 매년 평균 6000여 명의 청년이 8억여 원의 재산을 부모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서 초래된 빈부의 격차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모순을 모르 체하고, 더 나아가 당연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금수저’가 ‘흙수저’를 무시하고 짓밟는 ‘일그리진’ 세대가 ‘갑질하는 사회’라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로 고단한 삶을 살아 가는 서민을 조롱한 20대 여성은 ‘정의가 사라져 버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불쾌한’ 상징이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사회’는 짚뱀 대중의 좌절과 불만을 부른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사회를 찢어 놓는지는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다. 대중이 인내의 끈을 놓아 버리기 전에, 철저히 각성과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dplan@kwangju.co.kr

기고

가을 정취, 광주 북구에서 느껴보세요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원만한 가을이다. 가을 자연은 한껏 멋을 부린 긴소세 옷차림의 사람들처럼 알록달록 어여쁜 웃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나들이객들을 유혹한다.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이 온 것이다.

이때쯤이면 나들이객들은 국화, 단풍 등 늦가을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가을축제 현장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너도나도 축제장을 찾다보니 교통체증은 나들이객이 감수해야할 몹이 되고 사람들에 이리저리 치이다보면 정작 경이로운 자연 현상은 놓친 채 지친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다. 반면 바쁜 일상 때문에 먼 거리의 가을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가까운 도심 속에서 부담 없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건 어떨까?

북구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전시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 역시 26일부터 11월4일 까지 열을 동안 북구청 광장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기간 동안 청사광장에 대국, 소국, 다룬대작 등 형형색색의 60만송이 국화를 선보인다. 광장 중앙에는 이번 전시회를 상징하는 입구모양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한 썬지정원,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 전공 소묘인 ‘국화반’의 작품과 국화분재도 전시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재롱잔치, 인형극, 음악회 등 각종 공연과 나눔장터, 체험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19번째 이어 오고 있는 북구의 국화전시회는 답장이 없는 북구청 광장에서 펼쳐져 주민 누구나 편하게 국화를 감상할 수 있어 ‘도심 속 가을나들이’ 장소로 나름 명성이 자자하다.

특히 북구의 국화전시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이 운동동 화훼 비닐하우스에서 국화를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약 3000만원의 저비용으로 알차게 준비할 수 있고, 꽃을 가꾸는 사람들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선발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북구의 국화전시회는 ‘저비용’,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까지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일 년 중 가장 마지막에 피는 꽃, 한해를 마무리하는 국화를 북구청 광장에서 만끽했다면, 천혜의 자연과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광주 북구 8경’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광주 북구 8경’중 1경이자 광주의 얼굴 무등산. 그 어떤 산보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가을 무등산은 광주에서 제일가는 단풍명소이기도 하다. 다음달 6일 전후면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며, 특히 다음달 5일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등산 정상에 개방할 예정이어서 지왕봉, 인왕봉의 숨겨진 비경과 함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7호인 환벽당과 풍암정 또한 지나치지 아쉬운 곳이다. 가을 단풍과 조화를 이룬 송림, 나무, 계곡 등이 어우러진 자연 풍광이 수려한 곳으로, 잠시 정자에 앉아 옛 선비의 풍류를 느끼면서 산행으로 지친 다리를 쉬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환벽당 아래로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또한 가을단장을 마치고 손짓을 한

다.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된 왕버들은 1500년대 말 마을 주민들이 ‘비보(裨補) 숲’으로 조성한 것으로 현재 430년 수령의 3그루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왕버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호수생태원은 광주호 주변 18만4000㎡ 부지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습지의 가을 길드가 일품이다. 무등산이 품은 고즈넉한 산사, 원효사 또한 무등산의 이상봉, 윤필봉, 멀리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가볼만한 명소다.

가을날의 정취가 물론 풍기는 북구 여행지를 둘러봤다면 여행에 빠질 수 없는 필수코스 ‘식도락’으로 그 즐거움을 더해보자. 남도음식의 비법이 숨어 있는 도심 속 고향 같은 말바우 전통시장에서 정겨운 가득한 시장풍경도 구경하고 3000원 팔죽집, 국밥집, 맛갈스런 반찬가게, 빵집, 할머니 장터골목 등 색다른 시장 별미 음식으로 도심 속 가을여행을 풍요롭게 마무리 한다면 가을날 추억 만들기 코스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멀리 갈 필요 없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광주 북구 곳곳을 거닐어보자. 쏟아지는 햇살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물결, 알록달록 단풍, 푸짐한 먹거리와 구경거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가을날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은편칼럼

행복 총량의 법칙



이병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교수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총량이 있는 것일까? ‘지랄’에는 총량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정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이다.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돼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사춘기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에게 주어진다 ‘지랄’을 쓰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면 마

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경북대 김두식 교수가 지은 ‘불편해도 괜찮아’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 법칙을 다른 곳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총량의 법칙이 나온다. ‘효도 총량의 법칙’도 그 중 하나다. 효심에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법칙이다. 100세 시대에는 이미 늙어가는 자식들의 효도 총량이 소진되어 더 이상의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식을 효심이 고갈돼서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100세 부모들의 할 일이다. 고공애가 지은 ‘나이 드는 데도 예의가 필요하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 총량의 법칙’이다. ‘불행 총량의 법칙’과는 쌍둥이다. 새옹지마는 행복과 불행의 상관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불운할 때가 있었고, 한평생 불운했던 사람도 행복한 때가 반드시 있게 마

련이다. 어찌 보면 운명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영구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으니 ‘행복 총량의 법칙’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초년 성공을 인생 3대 불행 중의 하나로 꼽아 왔는데 이 또한 행복 총량의 법칙으로 풀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사’다. 더구나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기 힘들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농담삼아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큰 일 났겠다”는 것이다. “무슨 똥똥지갈은 말이냐”고 반문하자 하는 말이 걸작이다. “성적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분명 S대 공대에 갔을 것이다. 당시에 S대 공대에 간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지만 50대 중반에 이르자 대부분은

되다고 지금은 놓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아직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나”는 것이다. 당시엔 공대가 최고 인기 대학이었다.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지만 웃어넘기기에 걸리는 것이 많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흔히 고난을 ‘갑취진 축복’이라고 부른다. 숨겨진 축복은 고난을 극복해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은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 세상이 온통 웃을 일이 없고 희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행복이나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이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일까 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kwangju.co.kr

社說

진정성 없는 박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로의 연설문 유출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연설문 유출을 인정하고 총체적 사과는 했지만 최 씨를 둘러싼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거나 진실을 밝혀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태의 심각함에 비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에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대국민 사과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조윤천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라고 밝

히고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발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권에서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심이 떠난 정권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는 진상 규명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최 씨 모녀 강제 귀국 등의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 특검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 우 수석 역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발탁 당시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등 진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검 등의 비상한 조치를 통해 정권의 환부를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빛원전 언제까지 땀질식 대응만 할 건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1·2·5·6호기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관(管)막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원자력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해도 부족할 원전의 안전기준을 되레 더 낮춰 달라는 주문이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5월과 올 6월 한빛 1·2호기의 경우 설계 당시 5%로 제한했던 관막을 허용률을 7%로, 한빛 5·6호기는 8%에서 18%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원전 운영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는 증기발생기를 구성하는 세관에서 결합(균열·파손)이 생기더라도 18%(1·2호기는 7%)까지는 해당 세관을 막고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다.

증기발생기에는 ‘세관(細管) 8214개가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세관이 고장 나면 막아 놓은 채 그대로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막을 허용치를 넘

게 될 경우엔 원전 가동을 멈추고 안전을 위해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한다. 증기발생기 관(管)막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원자력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해도 부족할 원전의 안전기준을 되레 더 낮춰 달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한빛원전 증기발생기가 미국 등 원전 선진 국가에서조차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널 600 (합금의 일종)’소재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관막을 제한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한수원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 불안감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막을 제한치 완화 요구가 이미 원전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증기발생기 내부 손상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흔히 ‘정치는 90%가 말(언어)’이라고 한다. 국내 주요 언론의 정치 담당 초년 기자가 1년 동안 정치인들의 ‘워딩(말)’만 그대로 따라 적는 것도 정치에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말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은 말로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담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긴다.

지금처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이후 이명박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연설문

언기 총 평균 800여 개의 연설문을 남겼는데 직접 행간 정도도 중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간펜 선생님’이었다.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작성해 올리면 꼼꼼히 고쳐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쓰고 고칠 때는 파란색 사인펜을 쓴 뒤 마지막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수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안이 올라오면 연설비서관실 직원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한 뒤 자신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원고를 올리면 직접 고치고 또 고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곳에서 글을

받아 경정시키는 스타일이었다. 연설비서관이 3~4개의 원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소설가 이문열 씨도 필자에 포함됐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연설문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들을 모아 하물며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말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은 말로 국정을 운영한다.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담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긴다.

지금처럼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이후 이명박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언기 총 평균 800여 개의 연설문을 남겼는데 직접 행간 정도도 중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간펜 선생님’이었다.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작성해 올리면 꼼꼼히 고쳐 돌려보냈다. 처음에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쓰고 고칠 때는 파란색 사인펜을 쓴 뒤 마지막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수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안이 올라오면 연설비서관실 직원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한 뒤 자신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원고를 올리면 직접 고치고 또 고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곳에서 글을

다니 급기야 배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광복절 추사에서 안중근의 사 순국 장소를 뤼순이 아닌 하얼빈이라고 대통령이 잘못 발언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최 씨의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 수정안이 나오면서 국정 농단의 진실이 밝혀졌다.

우병우 파문과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도 꺾이지 않던 대통령이 연설문 농단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fax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ervices.